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 도시 도약

남원시, 생활밀착형 문화정책 연중 추진...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브랜드 강화 속도

남원시가 공연·전시·국기유산·국악·미술·공예 등 다양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문화정책을 연중 추진하며,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브랜드 강화에 속도를 냈다.

남원 현대 옷칠목공예관과 도자전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조사를 각각 5월과 12월에 통과하며, 남원 미술 기반 확장에 청신호를 쫓았다.

남원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시립예술단 공연 인프라도 강화, 시립예술단 공연장 '청아원'을 개관해 정기·기획공연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을 통해 총 8억 원 규모, 67개 문화예술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9개 사업을 추가 지원해 지역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활동을 뒷받침했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가야·춘향·광한투로 이어지는 도시 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확장에 주력했다. 5월 유곡리·두리리 고분군 홍보관(남원시 인월면 가야로 90)을 개관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가치를 알리는 거점을 마련했으며, '춘향제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춘향제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제52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을 통해



남원시가 공연·전시·국기유산·국악·미술·공예 등 다양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문화정책을 연중 추진하며,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브랜드 강화에 속도를 냈다.

판소리·관악·현악·무용·퓨전국악 등 전 분야에서 유망 국악인을 발굴했으며, 청소년부터 일반부까지 단계별 경연과 신인·외국인 참여 부문 운영으로 국악 저변을 확대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남원시 함파우길 65-14)을 중심으로 예술관광 기반을 확장도 지속 확대했다. 연간 관광객이 17만 명을 기록한 미술관은 협력전·기획전과 '제1회 김병종 미술상'을 운영하며 시민 향유 기회를 넓혔다.

공예 분야에서는 '제28회 남원시 전국 옷칠목공예 대전'에 108점이 출품돼 37점이 수상작

으로 선정됐으며, 전주공예품전시관과 서울 코엑스 공예트렌드페어 연계 전시로 저변을 확장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이 가진 세계유산과 전통예술, 현대문화 인프라 등 문화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콘텐츠와 인프라를 지속 고도화하고, 국내·외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 결실

전북자치도, 성과공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4일 전주시 완산구 하안양옥집(구 도시사 관사)에서 '2025년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구술·채록집과 마을문화집 등 다양한 결과물을 공유하고, 사업의 가치와 효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마을주민과 예술인, 권역별 운영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야기나무 점등식, 축하공연, 성과공유 전시 관람, 참여자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는 마을 고유의 이야기를 지역 문화 자산으로 확장하기 위한 주민 참여형 문화 사업이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라져가는 마을의 기억과 이야기를 기록하고, 예술인이 이를 문화와 문화콘텐츠로 재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사업에는 △무주·진안·장수(1권역)

△임실·순창·남원(2권역) △고창·정읍·부안·김제(3권역) 등 3개 권역에서 10개 마을과 3개 운영단체가 참여했다.

권역별 참여 마을은 △무주 서면마을 △진안 은천마을 △장수 수분마을 △임실 세심마을 △순창 매우마을 △남원 산촌마을 △고창 내기마을 △정읍 원덕마을 △부안 모산마을 △김제 대석마을 등 총 10개로, 권역별 운영단체가 기획과 운영을 전담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오늘 성과공유회가 다시 마을로 돌아가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이러한 소중한 마을의 이야기들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지역 문화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사업 추진 결과 문화예술인 12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1,251명이 문화 향유 혜택을 누렸다. 주민 공감 프로그램과 구술·채록 활동을 통해 구술·채록집 10권, 마을문화집 등 총 22권의 출판물과 영상·오디오북 등 시범 콘텐츠 5종을 제작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민호 기자

명창 안숙선 다큐멘터리 '심어' 방영

대한민국의 판소리 대(大)명창이자 국가무형유산 국창 안숙선(사진)의 예술 인생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남원시가 후원하고 전주KBS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심어'는 26일 저녁 7시 30분 전주KBS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국창 안숙선은 전북 남원 출생으로 만장제 춘향가 보유자이자 '영원한 춘향', '우리 시대 최고의 소리꾼', '국악계의 프리마돈나'로 불리며 유럽권 순회공연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체코 등 40여 개국 최고의 무대에 초청 공연을 통해 우리의 소리를 알리는 동시에 '천상의 소리'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타고난 성음과 천부적인 연기력으로 어린 시절부터 명창으로 성장하기까지의 판소리 여정을 보여주며, 무대 위의 소리꾼이자 한 사람으로서 안숙선의 삶을 밀도 있게 담아냈다. 오늘날 판소리를 배우는 젊은 예인들과 청소년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것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4부 '굿패와 전쟁' (10)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월립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눈치를 보니까 죽은 사람들은 지주였던가 봐요. 죄의 사람들을 피해서 비석골로 숨었는데 찾아내서 죽인 것 같아요. 생사람을 그냥 대나무 창으로 찌르고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는데 머리가 깨져서 피가 튀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굿패 마당이 온통 피로 범벅이 되어서 얼마나 처참하던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영영 울면서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는데,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어휴 끔찍해....."

신동택은 비참한 장면이 떠오르는지 눈을 감으며 온통 채운 채 부르르 몸서리를 쳤다.

"우리도 걱정이예요. 황전에 박대우가 우리 마을을 버리고 있다면서요. 다른 데로 파난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예요?"

"아무리 그런다고 무고한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심란한 마음에 남준은 바깥 공기를 쉼터 나가려는데 신동택이 붙었다.

"함부로 어디고 돌아다니지 마라."

신동택은 이런 말을 남준에게 했던 적이 없었는데, 왜 일까. 남준이 왜 그러냐는 눈으로 신동택을 돌아봤다.

"우리 가족 모두가 따뜻한 불가에 앉아 불을 쬐고 있는데, 너만 혼자 외로이 떨어져 추위에 떨고 있더구나. 그러니 위험한 데는 가지 말거라."

"심정이 그랬어요?"

신동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견뎌내고."

"어머니도 참."

남준은 어머니가 심거운 소리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골목으로 나오는데 저만치서 강정근이 걸어오고 있었다. 어디를 가는 건지 짐 보따리를 등에 메고 있었다.

"어디 가?"

"음에 심부름 가는 거야. 형한테 겨울옷 하고 이것저것 반찬도 가져다주려고."

강정근의 형은 고창읍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잘 갔다 오라는 말을 하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박명희에게 가서 황전마을의 분위기를 알아보게 좋을 것 같아 발길을 그쪽으로 돌렸다.

박명희는 소년단원의 일원으로 마을 회관 청소 일을 맡았다.

오후 무렵, 자위대원들이 회관으로 몰려와 모두 방안으로 들어갔다. 중요한 토의가 있는가보다 싶었다. 수수비로 마루를 쓸고 있는 명희의 귀에 방안에 모여 있는 자위



대원들의 대화가 들렸다.

박대우가 주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모양새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오고가는 말들이 심상치 않았다.

조용조용 이야기 하는 틈에 대화 전체를 다 들을 수 없었지만 '강씨 놈들, 처단한다' 라는 말이 들려왔다. 명희는 처음엔 무슨 말일까 하다가 그 단어들이 어떤 일과 연관되는 느낌이 들면서 온몸이 경직되었고 손발까지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번쩍 봉림이 떠올랐고 남준이 생각났다.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죄의 활동을 하는 자들이 교사나 관료, 군인, 경찰을 해먹었던 사람과 그 가족들을 모두 죽였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박대우는 오래전부터 봉림을 싫어했다. 박대우 뿐만 아니라 황전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대개가 봉림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괜히 막물 좀 먹었다고 유세를 부리고 황전 사람들을 해대해 왔던 그들은 봉건 지주들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른 봉림 사람들, 강병도와 신동택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명희를 잡아챘다. 아니다. 누구보다도 강남준에게 먼저 기벌을 해야 한다.

방안에서는 회의를 마쳤는지 모두 잔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명희는 들고 있던 수수비를 내던지고 봉림 쪽으로 내달렸다. 명희에게 가을 찬바람이 달려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골목길을 달렸다.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